

노인 고정관념의 억제와 오기억: 목표점화(goal priming) 및 망각지시의 비교*

신흥임 김민식†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BK사업단,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평소의 부정적인 태도나 차별행동을 생각하게 하여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을 억제하는 목표로 암묵적으로 동기화하는 목표점화조건과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을 직접적으로 망각지시하는 조건에서 노인 고정관념에 대한 오기억(false memory)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5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험도입부에 독거노인에 대한 뉴스를 청취하게 한 후 어휘판단과제에서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의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을 토대로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집단과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후 목표점화 또는 망각지시의 조건에서 참가자들에게 노인에 대한 글을 읽도록 하고, Deese-Roediger-McDermott (DRM)의 페리다임을 토대로 재인과제를 실시하여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부정적인 고정관념 연관문장에 대한 오제인율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서는 고정관념의 활성화, 지시유형 및 재인과제의 문장유형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집단에서는 망각지시의 조건에서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에 대한 오제인율이 목표점화의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재인과제에서 노인고정관념과 연관된 문장에서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정관념 억제에 대한 직접적인 망각지시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 오제인율을 높이는 데 비해 목표점화는 고정관념 억제를 암묵적으로 동기화시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논의에서는 고정관념 억제에 목표점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다루었다.

주요어: 고정관념, 목표점화, 망각지시, 오기억

고정관념은 특정 사회집단의 속성 및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다(Allport, 1954). 그동안 고정관념과 기억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고정관념은 쉽게 저장될 뿐만 아니라 연관 자극과의 짧은 노출만을 통해서도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anaji & Harden, 1996; Blair & Banaji, 1996; Devine, 1989;

Perdue & Gurtman, 1990). 고정관념은 복잡한 사회적 정보를 단순화하여 신속하게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Gilbert & Hixon, 1991; Macrae, Milne & Bodenhausen, 1994),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비연관정보에 비해 훨씬 더 수월하게 부호화되고 인출된다. 이에 따라 고정관념과 지시망각(directed forgetting)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2A-H00008).

† 교신저자: 김민식,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유익기념관, 전화: (02) 2123-2443, E-mail: kimm@yonsei.ac.kr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고정관념 연관정보는 일반적인 지시망각의 효과¹⁾와는 다르게 망각을 지시해도 인출억제가 잘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Macrae, Bodenhausen, Milne & Wheeler, 1996; Macrae, Bodenhausen, Milne & Ford, 1997). Macrae 등(1997)에서는 아동학대자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게 하여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킨 후, 고정관념 단어목록(예: 잔인한, 강박적인)과 고정관념 비연관단어목록(예: 목적없는, 오만한)을 제시했다. 망각지시조건에서는 고정관념 단어목록을 제시한 후 실험참가자들에게 연습이었으니 잊어버릴 것을 지시했으며, 고정관념 비연관 단어목록을 제시한 후에는 기억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반해 기억지시조건에서는 고정관념 연관 단어목록 및 고정관념 비연관 단어목록을 모두 기억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시망각에 대한 선행연구들(예: Basden 등, 1993; MacLeod, 1999)에서 망각지시된 단어목록이 기억지시된 단어목록에 비해 회상율이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Macrae 등(1997)에서는 망각지시된 고정관념 단어목록의 회상율과 기억지시된 고정관념 비연관 단어목록의 회상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의 다른 실험에서 실험참가자들에게 이중과제를 제시하여 인지부하(cognitive load)를 조작하였을 때, 고정관념 연관단어들에 대한 회상율이 고정관념 비연관단어들의 회상율에 비해 오히려 높아지는 반동효과(rebound effects)가 나타났다.

기억에서 이렇게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정관념 연관정보는 오기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나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자극을 잘못 기억하는 오기억에 대한 실험연구는

Deese(1959)가 처음 시도하였지만, 그동안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Roediger와 McDermott(1995)에 의해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Deese-Roediger-McDermott (DRM)의 패러다임을 통해 실험참가자가 ‘침대’, ‘휴식’, ‘꿈’ 등의 단어를 학습했을 때, 이와 연관된 결정적 유인단어(critical lure)인 ‘잠자다’를 추후 잘못 회상하거나 재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오기억에 대한 이론적 입장에는 도식(schema)에 따른 기억의 재구성이론(Dunning & Sherman, 1997)과 출처-점검이론(source-monitoring), 활성화-점검이론(activation-monitoring theory) 등이 있다(Steffens & Mecklenbräuker, 2007). 이 중 Roediger, Watson, McDermott와 Gallo(2001)의 활성화-점검이론(activation-monitoring theory)에서는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단어들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관단어들이 실험참가자의 내부에서(internally)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검사단계에서 실험참가자는 학습단계에서 외부로부터(externally) 제시되었던 단어인지 혹은 자신의 내부에서 생성된 것인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오기억을 설명한다. 활성화-점검이론은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단어들 간에 연상의 정도가 강할수록 연관단어들이 내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결정적 유인 단어들에 대한 오재인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통해 지지되었다(Anaki, Faran, Ben-Shalom & Henik, 2005).

Lenton, Blair와 Hastie(2001)은 DRM 패러다임을 변형하여 고정관념에 대한 오기억을 연구했다. 학습단계에서 성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여성 혹은 남성 직업(예: 여성의 경우 “간호사”, “비서”)을 제시했을 때, 추후 재인과제에서 성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직업(예: 미용사)에 대한 오재인율(false recognition rates)이 높아졌다. 또한 Araya, Ekehammar 및 Akrami(2003)에서도 외국인의 고정관념과 연관된 단어목록을 제시하고, 재인과제를 실시했을 때, 고정관념 연관단어들에 대한 오재인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결과가 고정관념 단어목록에 망각을 지시할 때만 관찰되었으며, 기억지시의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Araya 등은 이 결과를 망각지시가 기억지시와는 달리 고정관념과 연관된 정보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실험에

1) 지시망각의 실험에서는 참가자에게 단어목록을 먼저 제시한 후 모두 기억하도록 지시하거나 특정한 단어목록을 제시한 후 연습이었으니,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하며, 망각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참가자는 이전의 기억지시나 망각지시에 상관없이 사전에 제시되었던 단어목록을 모두 회상해야 한다. 지시망각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망각지시된 단어목록의 회상율은 기억지시된 단어목록의 회상율보다 낮아서, 특정 단어목록을 망각지시하면, 이 단어목록이 저장은 되지만 인출과정에서 억제됨을 주장하고 있다(Basden, Basden & Gargano, 1993; MacLeod, 1999).

서 고정관념에 대한 의도적인 망각을 지시하면 고정관념의 인출억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따른 오제인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수월하지만 고정관념은 오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는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직접적인 망각지시를 통한 의식적인 억제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직접적인 망각지시는 억제와 연관된 항목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egner(1994)는 의식적인 억제과정을 통해 억제하고자 하는 항목과 연관된 다른 항목들을 추적하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억제와 연관된 항목들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억제하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활성화되어 이에 대한 오기억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의식적인 억제는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²⁾ 인지부하가 많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의도한 방향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고정관념 억제방법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고정관념의 억제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비효과적이라면, 목표점화(goal priming)를 통해 고정관념의 억제를 바람직한 목표로서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실험참가자를 암묵적으로 동기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직접적인 지시를 통한 의식적인 억제가 오히려 억제와 연관된 항목들을 불필요하게 활성화시키고, 인지적 자원을 소모시키는데 비해, 목표점화를 통해 고정관념적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난 평등주의자(egalitarian)의 목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부정적인 고정관념 연

관 항목이 불필요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고, 고정관념에 대한 억제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인지적 자원이 거의 소모되지 않을 것이다(Moscowitz & Ignarri, 2009).

그러나 어떤 특정한 목표를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지금까지 목표는 우리의 마음에 인지적으로 표상되어 있는, 특정한 내용과 기능에 대한 지식의 구조로서(Kruglanski, 1996), 의식적인 동기화와 연관된다고 전제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목표와 연관된 작은 단서(cue)만을 통해서도 목표는 활성화될 수 있으며, 목표행동은 목표점화(goal priming)를 통해 암묵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hah, 2005). 목표점화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점화(semantic priming)와는 다른 개념들이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의미점화에서는 의미적 연관성에 따라 ‘의사’가 ‘간호사’를 활성화하는데 비해, 목표점화에서는 목표상태(“단정한 외모”)로부터 차이가 나는 현재 상태(“신발이 더럽다”)에 대한 인식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행동(“신발을 닦는다”)이 무의식적으로 동기화되거나 혹은 목표와 연관된 단어들(“클러스터”, “아츠”, “셀라”, “시브”, “아츠”, “디크스터huis”, “샤하”, “크루글anski”, “모스코비츠”, “게스undheit”)가 활성화된다(Clusters & Aarts, 2007; Sela & Shiv, 2009; Aarts & Dijksterhuis, 2000; Shah & Kruglanski, 2003). Moscowitz와 Gesundheit(2009)는 목표행동으로 이끄는 암묵적인 동기화에서 있어서 개인이 느끼는 긴장(tension)은 필수적인데, 이것은 현재 상태와 목표상태 간의 차이를 관찰하고, 이 차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긴장상태가 유지되는 목표상태의 도달 직전까지 목표점화의 효과는 계속 나타나지만, 바람직한 목표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목표점화의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örster, Liberman & Higgins, 2005). 목표점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목표점화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표점화를 통해 한 개인의 마음에 이미 표상되어 있는 목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Aarts & Dijksterhuis, 2000), 목표의 가치와 바람직성을 강조하여 목표가 긍정적인 정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Aarts, Custers & Holland, 2007; Aarts, Custers & Veltkamp, 2008; Ferguson, 2007).

2) Wegner(1994)는 ‘북극곰’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억누르고자 할 때 두 가지 과정이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북극곰과 연관된 생각을 추적하는 모니터링과정(monitoring process)이며, 두 번째는 북극곰과 연관된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의식적으로 찾는 작동과정(operating process)이다. 모니터링 과정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데 비해 작동과정은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지부하가 많은 상황일수록 작동과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과정이 주가 되어, 억제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더 많이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목표점화의 실험에서는 목표와 연관된 단어들을 역치하로 제시하거나 목표와 연관된 생각이나 그림을 보는 과제를 통해 혹은 점화단어가 포함된 뒤섞인 단어들을 제시하고, 실험참가자가 문장을 완성하는 과제를 통해 목표점화를 하고 있다(Shah, 2003; Bargh, Gollwitzer, Lee-Chai, Barndollar & Trotschel, 2001; Moscovitz, 2002; Chartrand, Huber, Shiv & Tanner, 2008; Shah, 2005). Shah(2003)는 ‘아버지(father)’의 단어를 10ms동안 제시한 후 실험참가자에게 추론능력과 연관된 애너그램(anagram)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 실험참가자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 및 아버지가 추론능력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아버지의 목표점화조건에서 비단어를 점화한 통제조건보다 애너그램 과제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참가자에게 중요한 타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목표를 점화할 때, 목표접근성이 높아져 이와 연관된 과제수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실험자가 단어를 역치하로 제시하는 방법 이외에도 실험참가자가 목표를 의식하지 않게 목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목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Moscovitz & Gesundheit, 2009). Sassenberg와 Moscovitz(2005)는 실험참가자에게 실험과는 연관이 없는 질문지라고 설명하고 ‘다르게 생각해보시다(think different)’의 과제를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창의성의 목표를 활성화시킨 후 어휘판단과제를 실시했을 때, 전형적으로 연상되는 단어의 짝(예: 밤-어둠)에 대한 반응시간이 연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단어의 짝(예: 물-어둠)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아 ‘창의성’의 목표점화가 범주에 대한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다(think thoughtfully)’의 목표점화조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여기에서는 전형적으로 연상되는 단어의 짝일수록 반응시간이 빨라졌다. 또한 Bargh 등(2001)은 뒤섞인 단어속에 ‘협동(cooperation)’의 단어를 함께 제시하고, 문장완성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협동의 목표를 점화한 후, 제한된 자원의 모의 낚시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했을 때, 참가자들이 협동의 목표점화조건에서 목표점화를 하지 않은 통제조건보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취했다고 보고했다.

Moscovitz와 Li(2011)는 목표점화를 고정관념의 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은 실험도입부에 참가자의 한 집단에게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등주의자(egalitarian)의 목표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경험을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전통(tradition)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 경험을 기록하도록 했다. 그 후 실시된 어휘판단과제에서는 흑인 얼굴사진 또는 백인 얼굴사진을 흑인 고정관념 연관 단어(예: 게으른, 공격적인) 및 고정관념 비연관 단어(예: 불안한, 이기적인)에 선행하여 제시했다. 실험결과에서는 전통의 목표점화조건에서 흑인 얼굴사진이 선행하여 제시되면, 흑인 고정관념 연관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빨라졌지만, 평등주의자의 목표점화조건에서는 흑인 또는 백인 얼굴 사진과 상관없이 흑인 고정관념 연관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의 다른 실험에서는 실험참가자의 한 집단에게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 억제에 성공한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 억제에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게 했을 때, 이 중 실패한 경험을 생각하며, 현재 상태와 목표상태와의 차이를 인식한 집단에서만 고정관념 연관 단어 및 비연관 단어들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평등주의자의 목표점화효과가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목표점화를 통해 특정한 목표행동으로 동기화시킬 수 있으며, 현재 상태와 목표상태간의 차이를 부각시켜 심리적 긴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점화에 결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목표점화는 현재 상태와 목표상태의 차이를 인식시켜 다양한 상황에서 목표행동으로 암묵적으로 동기화시키며, 평등주의자의 목표를 점화시키면 우리의 고정관념적인 사고를 억제하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Moscovitz, Gollwitzer, Wasel & Schaal, 1999; Moscovitz, 2002; Moscovitz & Ignarri, 2009)에서 고정관념의 억제를 목표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 목표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을 감안하여, 고정관념 억제의 목표를

일상적으로 별로 추구하지 않는 개인들에게서도 목표점화의 암묵적인 동기화를 통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억제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평등주의자의 목표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 개인들에게는 고정관념과 연관된 단서(예: 사진, 신문기사)에 짧은 시간 동안만 노출되어도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정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목표점화가 어느 정도 억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의 활성화정도가 높은 집단과 활성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목표점화가 고정관념에 대한 우리의 기억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 서술한 연구들(예: Sassenberg & Moscovitz; Moscovitz & Li, 2011)에서는 목표점화의 조건에서 고정관념 연관정보 및 비연관정보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만을 분석하였으며, 목표점화가 고정관념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았다. 목표점화가 고정관념에 대한 망각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과는 달리 고정관념 억제의 무의식적인 동기화를 통해 고정관념 정보에 대한 오기억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고정관념의 자동적인 활성화가 우리의 기억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현실적인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목표점화와 같이 고정관념 억제의 목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조건과 망각지시와 같이 고정관념의 억제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조건에서 오기억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다. 목표점화와 망각지시는 모두 동일하게 고정관념 억제의 목표를 추구하지만, 각 지시유형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오기억이 더 증가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노인 고정관념의 내용이나 노인 고정관념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실시된 점(예: 서병숙, 김수현, 1999; 한정란, 2000; 이영숙, 박경란, 2003)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의 억제효과를 망각지시 및 목표점화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

는 뉴스를 청취하게 한 후, 목표점화조건 또는 망각지시의 조건에서 고정관념과 연관된 문장 및 연관되지 않은 문장을 제시하고,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고정관념 연관 문장에 대한 참가자의 오제인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정관념 연관단어 및 비연관단어에 대한 어휘판단과제의 반응시간에 따라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집단과 활성화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³⁾ 목표점화 또는 망각지시조건에서 오제인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목표점화에 대한 선행연구(Moscovitz & Ignarri, 2009; Sela & Shiv, 2009; Shah & Kruglanski, 2003)를 토대로 목표점화조건에서는 노인 고정관념에 대한 억제의 목표를 암묵적으로 동기화시키기 위해 고정관념 억제에 실패한 현재 상태와의 차이가 부각되도록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노인에 대해 차별행동을 한 경험을 기록하도록 지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 상태와 목표상태간의 차이를 통해 목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표점화조건의 지시문은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 억제의 바람직성을 강조하기 위해 긍정적인 노인 고정관념과 연관된 사례(예: 74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노벨문학상 수상)를 통해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 망각지시조건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잊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

요약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에 대한 직접적인 망각지시와 목표점화가 노인 고정관념에 대한 오기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검증하는데 있으며, 망각지시와 목표점화의 효과를 고정관념의 활성화정도가 높은 집단과 활성화정도가 낮은 집단에 따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고정관념이 높게 활성화된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망각지시하면, 고정관념의 활성화정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많이 활성화

3) 선행연구(Sassenberg & Moscovitz, 2005; Tse & Neely, 2005)에서는 어휘판단과제를 통해 단어가 활성화된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가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 연관단어에 대해 노인 고정관념 비연관단어보다 더 신속하게 반응할 때 고정관념 활성화집단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에 포함시켰다.

화되어 고정관념 연관정보에 대한 오재인율을 높이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정관념이 높게 활성화된 집단에서 목표점화를 통해 고정관념에 대한 억제가 암묵적으로 동기화된다면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억제될 것이기 때문에 망각지시조건에 비해 고정관념 연관정보에 대한 오재인율이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문장들에 대한 오재인율의 차이는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따른 망각지시 또는 목표점화조건에서 고정관념 연관정보에 대해서만 나타날 것이며, 고정관념 비연관정보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고정관념 연관 정보 및 비연관 정보에 대한 부호화의 오류에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고정관념 연관 문장 또는 비연관문장들에 대한 재인율의 차이는 고정관념의 활성화 및 지시유형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Y대학교 대학생 56명(남 = 22, 여 = 34)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실험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3.1세(연령 범위: 19-26)였다.

실험설계

본 연구는 2*2*2 요인설계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고정관념 활성화집단과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지시유형(목표점화 또는 망각지시)이었으며, 세 번째 요인은 재인과제의 문장유형(고정관념 연관문장 또는 고정관념 비연관문장)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참가자내 변인으로, 이 변인에 대한 반복측정이 실시되었다. 종속변인은 재인과제의 오재인율이었다. 고정관념 활성화집단과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은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 단어 및 고정관념 비연관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을 토대로 실험이 끝난 후 구분하였으며, 참가자는 두 가지 지시유형의 조건에

무선할당되었다.

실험재료

뉴스영상물

실험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인에 대한 실제 뉴스 영상물을 사용하였다. 이 영상물은 80세가 넘는 어느 독거노인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병들고 허약한 상태속에서 외롭게 임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노인의 인터뷰 내용 및 고령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지원비용이 확대되어 경제침체가 우려된다는 설명을 포함하였다.

단어자극 및 글 자극

뉴스청취 직후 실시된 어휘판단과제에는 6개의 노인 고정관념 연관단어, 6개의 노인 고정관념 비연관 단어, 12개의 비단어 및 6개의 연습단어를 사용하였다. 고정관념 단어는 노인을 연상시키는 3개의 부정적인 형용사(예: 의존적인, 외로운) 및 3개의 긍정적인 형용사(예: 지혜로운, 존경받는)로 구성되었으며, 고정관념 비연관 단어들은 성격에 관한 3개의 부정적인 형용사(예: 게으른, 위협적인) 및 3개의 긍정적인 형용사(예: 생동적인, 합리적인)를 사용하였다. 노인 고정관념 단어들은 Heckhausen, Dixon 및 Baltes(1989)에서 노화와 함께 직접적으로 연상되는 정도가 9점 척도에서 8점 이상인 30개의 단어들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노인고정관념에 관한 선행연구(이영숙과 박경란, 2001)와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12개를 선택하여 어휘판단과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정서가(emotional valence) 통제를 위해 Heckhausen 등(1989)에서 사회적 바람직성(desirability)을 9점 척도에서 평정한 결과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단어들은 7점에서 9점 사이에 위치한 단어들을 선정하였고, 부정적인 단어들은 1점에서 3점 사이에 놓인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에는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6개의 글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노인에 관한 글은 짧은 글 1개 및 긴 글 2개였다(부록 1 참고).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글은 모두 각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형용사와 부정적인 형용사를 균등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표 1. 어휘판단과제에서 고정관념 연관단어 및 비연관단어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ms)

단어유형	집단	
	고정관념 활성화집단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
부정적인 고정관념 연관단어	593 (76)	667 (85)
긍정적인 고정관념 연관단어	637 (111)	615 (87)
부정적인 고정관념 비연관단어	659 (86)	601 (84)
긍정적인 고정관념 비연관단어	628 (105)	632 (107)
평균	637 (97)	629 (92)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재인과제

재인과제에서는 Deese-Roediger-McDermott (DRM)의 패러다임(Roediger & McDermott, 1995) 및 Araya 등(2003)을 참고로 하여 총 25개의 문장을 사용하였다(부록 2 참고). 이 중 5개의 문장은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5개의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 형용사(예: 보수적인, 완고한, 우울한, 삶에 지친)를 포함했고, 다른 5개의 문장은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5개의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 비연관형용사(예: 불안한, 오만한, 예민한, 공격적인)로 이루어졌다. 남은 15개의 문장들은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문장이었으며, 이 중 5개 문장은 노인 고정관념 연관 형용사(예: 잘 잊어버리는, 고향을 생각하는)를, 나머지 10개 문장은 노인 고정관념과 연관되지 않은 형용사(예: 관대한)를 포함하였다. 고정관념과 연관되지 않은 10개의 문장 중 4개의 문장은 긍정적인 형용사(예: 성실한, 재능있는)를, 다른 4개의 문장은 부정적인 형용사(예: 조급한, 부주의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다른 2개의 문장은 중성적인 형용사(예: 영화를 즐기는, 소설을 좋아하는)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정서가 통제는 Heckhausen 등(1989)을 참고로 실시되었다.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 실험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지시 및 글은 17인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시되었다. 실험은 독거노인에 관한 뉴스를 2분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휘판단과제를 실시하

였다. 어휘판단과제에서는 6개의 연습단어가 제시된 후 12개의 단어 및 12개의 비단어가 무선적 순서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단어 혹은 비단어인지를 판단하고, 단어이면 컴퓨터 자판위의 '네'를, 단어가 아닐 경우에는 '아니오'를 가능한 빨리 누르도록 했다. 단어 혹은 비단어는 1초 동안 제시되었으며, 항상 'XXXX'의 응시점으로 시작하였다. 자극간 간격은 2초로 설정하였다. 어휘판단과제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망각지시 또는 목표점화의 조건에 무선했당되었다. 망각지시조건에서는 노인에 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잊어버리라는 지시가 주어졌으며⁴⁾, 목표점화조건에서는 현재 상태와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 억제라는 목표 상태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평소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차별행동을 한 경험'에 관해 기록하도록 했다⁵⁾. 망각지시는 컴퓨터 화면에서 제시되었고, 목표점화조건의 지시문은 질문지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참가자가 지시문을 읽고 질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컴퓨터 화면에 길이가 다른 6개의 글이 제시되었다. 짧은

- 4) 직접적인 망각지시로 인해 실험참가자에게 연구의도가 드러날 가능성을 최소화 감소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뉴스청취와 기억'이라는 연구제목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이 끝난 후 실험참가자에게 연구취지를 파악했는지를 구두로 질문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매체와 기억 효과', '노인에 대한 연구' 등으로 대답했으며, 망각지시에 대해 언급한 실험참가자는 없었다.
- 5) 목표점화조건에서 참가자들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차별행동을 한 경험에 대해 '자리양보를 강요당했을 때 화가 났다'의 내용을 가장 많이 적었으며,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노인을 만났을 때', '이기적이고 생각이 닫혀있는 노인', '시끄럽고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노인', '고려타분한 노인과 대화했을 때 기분을 맞추어주고 빨리 끝냈다' 등도 있었다.

글은 10초간 제시되었고, 긴 글은 15초간 제시되었다. 그 다음에는 최신효과(recency effect)를 줄이기 위해 간단한 수식과제 및 그림찾기과제를 각각 5분 동안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글에 대해 재인과제를 수행했다. 재인과제는 질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재인과제가 완료되면 노인을 돕고자 하는 행동에 관해 간략한 사후질문지가 실시되었다. 사후질문지가 끝나면, 참가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집단과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지 않은 집단에서 망각지시조건과 목표점화조건에 따라 노인 고정관념과 연관된 문장 및 비연관 문장에 관한 오재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휘판단과제

고정관념 연관단어 및 고정관념 비연관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을 표 1과 같이 분석하여 고정관념 활성화 집단 및 비활성화집단을 구분하였다. 네 가지 단어유형(부정적인 고정관념 연관단어, 긍정적인 고정관념 연관단어, 부정적인 고정관념 비연관 단어 및 긍정적인 고정관념 비연관 단어)은 참가자내 변인으로 반복측정이 실시되었다. 2(집단) x 4(단어유형)을 혼합설계 분산분석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단어유형의 주효과나, $F(3,50)=.256$, $MSe=.001$, $p=.857$,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F(3,50)=.033$, $MSe=.001$, $p=.856$,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다, $F(3,50)=19.96$, $MSe=.047$, $p=.000$. 고정관념 활성화집단에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연관 단어에 대해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지만, $t(54)=3.475$, $p=.001$, 긍정적인 고정관념 연관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t(54)=-1.089$, $p=.231$. 또한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에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연관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 비연관단어보다 더 신속하게 반응한 데 비해, $t(31)=-4.572$,

$p=.000$,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에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비연관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 연관단어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다, $t(23)=-5.684$, $p=.000$. 긍정적인 노인고정관념 단어와 긍정적인 고정관념 비연관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에서는 고정관념 활성화집단, $t(31)=.740$, $p=.465$, 및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23)=-1.583$, $p=.127$.

재인과제

2(고정관념의 활성화) x 2(지시유형) x 2(재인과제의 문장유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 요인 및 두 번째 요인은 참가자간 변인으로, 세 번째 요인은 참가자내 변인으로 혼합설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요인인 재인과제의 문장유형은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고정관념 연관 문장의 총 개수 대비 잘못 재인한 문장개수로 고정관념 연관 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을 계산하고, 재인과제에서 새롭게 제시된 고정관념 비연관 문장 총 개수 대비 잘못 재인한 문장개수로 고정관념 비연관 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을 산출한 후 참가자내 변인으로서 반복측정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따른 집단의 주효과, $F(1,52)=.138$, $MSe=.005$, $p=.712$, 및 지시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F(1,52)=.389$, $MSe=.014$, $p=.535$, 재인과제 문장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정관념 연관문장에 대한 오재인율($M=.31$)은 고정관념 비연관문장에 대한 오재인율($M=.19$)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F(1,52)=8.943$, $MSe=.443$, $p<.01$. 또한 본 연구의 가설에서 예측했던 대로 고정관념의 활성화, 지시유형 및 재인과제 문장유형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52)=4.219$, $MSe=.204$, $p<.05$. 이에 따라 표 2와 같이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지 않은 집단에서는 목표점화조건($M=.32$)에서 고정관념 연관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이 망각지시조건($M=.23$)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데 비해, $t(22)=1.535$, $p=.139$,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집단에서는 목표점화의 조건($M=.27$)에서 망각지시의 조건($M=.45$)보다 고정관념 연관 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t(30)=-2.346$, $p<.05$.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의 활성화

에 따른 집단 및 지시유형간의 상호작용은 노인 고정관념 비연관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F(1,53)=.216$, $MSe=.01$, $p=.644$. 이 결과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망각지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연관된 정보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고정관념 연관정보에 대한 오재인율을 높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뉴스청취를 통해 노인 고정관념과 연관된 자극을 동일하게 제시해도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활성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집단에서 직접적인 망각지시는 고정관념 억제의 의도와 상반된 영향을 끼쳐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정관념의 억제에 실패한 현재 상태를 인식시켜 고정관념 억제의 목표로 암묵적으로 동기화하는 목표점화에서는 고정관념의 활성화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고정관념 연관 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이 망각지시의 조건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목표점화조건에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망각지시조건에 비해 낮아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고정관념 연관 문장에 대해 오류를 범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고정관념 활성화집단에서 목표점화조건 및 망각지시조건간의 오재인율의 차이가 실제로 목표점화가 고정관념을 억제했기 때문인지 혹은 망각지시가 고정관념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목표점화가 고정관념을 억제했기 때문이라면 고정관념 활성화집단의 목표점화조건에서 고정관념 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은 망각지시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아야 할 뿐 아니라 고정관념 비연관문장에 대한 오재인율과 유사한 정도로 낮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관념 활성화집단의 고정관념 연관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이 목표점화조건에서 망각지시조건보다 낮았으며, $t(30)=2.346$, $p<.05$, 목표점화조건내에서 고정관념 연관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이 고정관념 비연관문장에 대한 오재인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t(14)=1.227$, $p=.24$, 고정관념 억제를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망각지시조건의 고정관념 연관문장에 대한 오재

인율은 목표점화조건보다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 비연관문장에 대한 오재인율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t(16)=3.58$, $p<.01$, 망각지시가 고정관념을 더 활성화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점화 및 망각지시에 따라 고정관념 활성화집단에서 나타난 고정관념 연관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의 차이는 목표점화에 의한 고정관념 억제 및 망각지시에 따른 고정관념의 활성화의 두 가지 이유에서 모두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노인 고정관념 연관 정보에 대한 오재인율이 높은 결과를 고정관념 연관정보에 편향된 부호화로 해석될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고정관념 연관 문장 및 비연관문장에 대한 재인율을 산출하여, 2(집단)x2(지시유형)x2(재인과제의 문장유형)에 따라 세 번째 요인을 참가자내 변인으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문장에 대한 재인율은 표 2와 같이 노인고정관념 연관 문장과 비연관문장에 대해 고정관념의 활성화 및 지시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F(1,52)=.130$, $MSe=.003$, $p=.72$. 이에 따라 고정관념이 높게 활성화된 집단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망각지시될 때, 고정관념 연관 문장에 대한 오재인율이 목표점화조건보다 높은 것은 고정관념 연관정보에 편향된 부호화의 실수로 해석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 질문지를 통해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 억제의 목표점화가 노인을 돕고자 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도 동기화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참가자에게 노인을 돕고 싶은 정도를 10점 척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였을 때,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집단의 경우 목표점화조건(M : 6.9)에서 망각지시조건(M : 5.9)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30)=1.484$, $p=.15$. 또한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에서도 노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정도가 목표점화조건(M : 6.8)과 망각지시조건(M : 7.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22)=-.788$, $p=.4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뉴스를 청취하도록

표 2. 고정관념의 활성화, 목표점화 및 망각지시에 따른 오제인율

조건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문장에 대한 오제인율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문장에 대한 오제인율	
		노인 고정관념 연관	노인 고정관념 비연관	노인 고정관념 연관	노인 고정관념 비연관
		고정관념 비활성화 집단(N=24)	목표점화(N=13) 망각지시(N=11)	.32 (.20) .23 (.19)	.18 (.18) .24 (.29)
고정관념 활성화 집단(N=32)	목표점화(N=15) 망각지시(N=17)	.27 (.19) .45 (.20)	.17 (.21) .18 (.19)	.76(.21) .78(.15)	.79(.17) .83(.17)
	평균	.31 (.21)	.19 (.21)	.75(.19)	.80(.18)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하여 노인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의 망각을 지시하면 고정관념 연관 정보에 대한 오제인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망각지시가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켜 고정관념에 대한 오기억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며, Araya 등(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인 망각지시는 오히려 고정관념 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실험참가자에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차별행동을 한 경험을 기록하게 하여 노인 고정관념 억제의 목표 상태로 암묵적으로 동기화하는 목표점화조건에서는 고정관념 연관정보에 대한 오제인율이 망각지시조건에 비해 낮아서 고정관념 억제에서 개인의 동기화 정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Park, Glaser와 Knowles (2008)는 고정관념 억제에 대해 암묵적인 동기화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동기화의 정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인지부하의 상황에서도 외집단에 대한 차별행동⁶⁾을 스스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지부하가 높아져도 과제수행에서 오류를 범하는 정도가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내적 동기화 정도는 고정관념 억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고정관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서 망각지시를 주게 되면 기억과제의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은 망각지시가 목표점화에 비해 고정관념 억제에 대한 동기화에 있어서 비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정관념이 이미 활성화된 집단에서 목표점화를 통해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기억에 주는 영향이 억제된 것은 고정관념의 억제에 목표점화를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Moscovitz와 Li(2011)는 고정관념의 억제방식에 대해 특정 사회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형식(control by blocking categorization)과 특정 사회 범주에 대해 이미 활성화된 고정관념을 억제하는 형식(control despite categoriza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동안 사회심리학의 연구들에서는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이것이 우리의 사고나 기억 및 행동에 주는 영향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의 억제는 편견이나 차별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내적으로 항상 동기화되어 있는, 평등주의자의 목표를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개인들에서나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Glaser & Knowles, 2008; Moscovitz 등, 1999). 따라서 평등주의자의 목표를 일상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고정관념과 연관된 단서에 짧게만 노출되어도 고정관념과 연관된 정보들이 함께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활성화되어도 주위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평등주의자의 목표를 점화시킬 수 있다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억제되어 고정관념과 연관된 정보가 불필요하게 인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한 개인이 고정관념의 억제를 의

6) Park 등(2008)은 사격과제(shooter task)를 통해 흑인에 대한 차별행동을 측정하였다.

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고정관념의 활성화를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억제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단계에서의 억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억제기제도 역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많은 의식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방안보다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고정관념 억제의 목표로 무의식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정관념이 높게 활성화된 집단의 오제인율이 망각지시조건에서 목표점화조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Roediger 등(2001)의 활성화-점검이론에 따라 생각해볼 때 망각지시조건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많이 활성화됨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망각지시조건에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많이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 단어가 학습단계에서 외부로부터 제시된 것인지 혹은 실험참가자의 내부에서 생성된 것인지에 대한 출처기억의 실패가 더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목표점화조건에서 관찰되지 않은 것은 부정적인 고정관념 단어들이 목표점화에서는 내부적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억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Liberan과 Förstner(2000)는 원래 의도한 목표와는 상반되는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원래의 목표를 암묵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그림을 묘사할 때 색채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주어 참가자들이 그림을 묘사하게 하였다. 이 후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묘사하게 했는데, 색채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통제조건보다 더 많은 색깔을 사용하며 자신의 집을 묘사했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특정 목표를 추구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면 이 목표에서부터 더 많이 벗어나게 되는 목표 반동효과(goal rebound effects)가 있으며, 목표의 직접적인 제시를 통해 상반되는 목표를 점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망각하라는 지시가 주어진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오제인율이 높아진 것은 직접적인 망각지시가 참가자들이 망각과는 상반되는 고정관념 활성화의 목표로 향하도록 암묵적으로 동기화시킨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의 활성화집단과 비활성화집단을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을 토대로 구분하였는데, 망각지시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집단에서만 고정관념 연관문장에 대한 오제인율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망각지시는 고정관념이 이미 활성화된 개인들에게서 기억억제의 반동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Macrae 등, 1996; Macrae 등, 1997)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지 않은 개인들에게서는 직접적인 망각지시는 기억억제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고정관념이 이미 활성화된 개인들에게서는 고정관념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켜 오히려 고정관념에 대한 기억을 억제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점점 더 증가하는 지금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한정란, 2000)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외부의 지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들의 반발심을 더 증가시키고, 노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행동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정관념의 억제에 대한 망각지시 및 목표점화의 비교에서 재인율을 유일한 종속변인으로 측정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는 반응시간이나 재인율 혹은 회상율과 같이 실험참가자가 반응을 종료하는 시점의 최종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의 궤적(trajjectory)을 추적하여 실험참가자가 반응하는 과정을 탐색하고 있는데(Freeman & Ambady, 2009)⁷⁾, 본 연구에서 이러한 다

7) Freeman과 Ambady(2009)는 성 전형적인 얼굴과 비전형적인 얼굴의 지각에 따라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마우스의 궤적을 추적하여 탐색했다. 연구자들은 스크린의 중앙에 성 전형적인 얼굴 또는 비전형적인 얼굴을 제시한 후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따라 컴퓨터 스크린의 상단에 나타나는 두 개의 형용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을 때, 비전형적인 얼굴의 조건

양한 종속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의 억제에 따른 참가자의 인지과정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망각지시 및 목표점화의 효과를 통제조건과 비교하지 않았다. 고정관념 활성화의 집단에서는 망각지시의 조건에서 목표점화의 조건보다 오재인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다른 통제조건과 비교하지 않아 목표점화가 어떤 지시문도 주지 않은 통제조건에 비해 오재인율이 더 낮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후속연구에서는 망각지시 및 목표점화의 오기억에 대한 효과를 다른 조건들과 더 세분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후속연구에서는 망각지시조건에서 노인 고정관념 연관 단어의 개수를 달리하여 고정관념이 높게 활성화될수록 오재인율이 증가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목표점화조건에서는 실험참가자가 현재 상태와 노인에 대한 평등적 태도를 갖고자 하는 목표상태와의 차이를 인식하여 심리적 긴장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목표의 접근성이 어떻게 달라지며, 이에 따라 고정관념 억제에 대한 암묵적인 동기화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목표점화효과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제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목표접근성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목표접근성과 목표점화간의 관계에 대해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목표점화를 통해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 억제의 목표로 무의식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식적인 동기화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러한 무의식적인 목표점화의 효과가 일정 시간이 경과해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더

에서 전형적인 얼굴의 조건에 비해 마우스의 궤적이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행동사의 방향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면서 이동함을 관찰했다. 이에 따라 마우스의 궤적은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대한 인지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어 본 연구에서 ‘평등주의자’의 목표점화를 통해 실제로 평등과 관련된 단어들에 대한 접근성을 점검하지 않은 것이나,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무의식적인 동기화가 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려는 무의식적인 동기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목표점화를 통한 무의식적인 동기화가 우리의 사고나 행동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목표점화를 조작하는 실험절차상의 한계점이다. 목표상태와 현재상태간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이 목표점화를 유도하는데 필수적이라면, 특정 개인들에게는 평등주의자의 목표와 차이가 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노출되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점화에 따라 고정관념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거노인 뉴스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연결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특정 개인에게서는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생각하게 하여 노인에게 평등하게 대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와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면서, 목표점화와 유사한 고정관념 억제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에 속하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잠시 노출되어도 자신의 목표상태를 신속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실제로 목표점화조건에서 더 뚜렷하게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점화조건에서 고정관념 비활성화집단과 활성화집단 간에 고정관념 연관정보에 대한 오재인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거노인 뉴스를 청취하는 것만으로 비활성화집단에서 이미 목표점화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특정 개인들에게는 평등주의자의 목표상태와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자극이기 때문에 목표점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목표상태와 현재상태와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목표점화의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고정관

념 억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정관념과 연관된 자극에 노출되면 모든 개인에게서 동일한 정도로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관념은 쉽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억제기제를 연구하는 것은 고정관념이 우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미 1790년에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지각의 문(the doors of perception)에서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이리라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Bloom, 1987). 외부의 직접적인 어떤 지시보다도 스스로 타인을 지각하는 자신의 현재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고와 기억에서 범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목표점화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고정관념 억제에 목표로서 암묵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목표의 역할이 고정관념 억제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점화의 맥락적인 요인들과 동기적인 요인들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병숙, 김수현 (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 97-111.

이영숙, 박경란 (2003). 대학생이 인지하는 남, 여 노인의 고정관념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19, 83-109.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 115-127.

Aarts, H., & Dijksterhuis, A. (2000). Habits as knowledge structures: Automacity in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53-63.

Aarts, H., Custers, R., & Holland, R. W. (2007). The nonconscious cessation of goal pursuit: When goals and negative affect are coactiv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65-178.

Aarts, H., Custers, R., & Veltkamp, M. (2008). Goal priming and the affective-motivational route to nonconscious goal pursuit. *Social Cognition*, 26, 555-577.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Anaki, D., Faran, Y., Ben-Shalom, D., & Henik, A. (2005). The false memory and the mirror effects: The role of familiarity and backward association in creating recollection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2, 87-102.

Araya, T., Ekehammar, Bo., & Akrami, N. (2003). Remembering things that never occurred: The effects of to-be-forgotten stereotypical information. *Experimental Psychology*, 50, 27-32.

Banaji, M. R., & Hardin, C. D.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Bargh, J. A., Chen, M., & Burrows, L. (1996). Automa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230-244.

Bargh, J. A., Gollwitzer, P. M., Lee-Chai, A., Barndollar, K., & Trötschel, R. (2001). The automated will: Nonconscious activation and pursuit of behavioral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014-1027.

Basden, B. H., Basden, D. R., & Gargano, G. J. (2003). Directed forgetting in implicit and explicit memory tests: A comparison of method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9, 603-616.

Blair, I., & Banaji, M.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Bloom, H. (1987). *William Blake's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New York: Chelsea House

- Publishers
- Chartrand, T. L., Huber, J., Shiv, B., & Tanner, R. (2008). Nonconscious goals and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 189-201.
- Clusters, R., & Aarts, H. (2007). Goal-discrepant situations prime and goal-directed actions if goals are temporarily or chronically accessib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623-633.
- Deese, J. (1959). On the prediction of occurrence of particular verbal intrusions in immediate recal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8*, 17-22.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Devine, P. G., Plant, E. A., Amodio, D. M., Harmon-Jones E., & Vance, S. L. (2002). The regulation of explicit and implicit race bias: The role of motivations to respond without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35-848.
- Dijksterhuis, A., Bos, M. W., Nordgren, L. F., van Baaren, R. B. (2006). On making the right choice: The deliberation-without-attention effect. *Science*, *311*, 1005-1007.
- Dunning, D., & Sherman, D. A. (1997). Stereotypes and tacit in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459-471.
- Ferguson, M. J. (2007). On the automatic evaluation of end-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596-611.
- Förster, J., Liberman, N., & Higgins, E. T. (2005). Accessibility from active and fulfilled go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20-239.
- Freeman, J. B., & Ambady, N. (2009). Motions of the hand expose the partial and parallel activation of stereotypes. *Psychological Science*, *20*, 1183-1188.
- Gilbert, D. T., & Hixon, J. G. (1991). The trouble of thinking: Activation and application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09-517.
- Glaser, J., & Knowles, E. D. (2008). Implicit motivation to control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1), 164-172.
- Heckhausen, J., Dixon, R. A., & Baltes, P. B. (1989). Gains and losses in development through adulthood as perceived by different adult age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09-121.
- Kruglanski, A. W. (1996). Goals as knowledge structures. In P. M. Gollwitzer & J. A. Bargh (Eds.),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nd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pp.599-619). New York: Guilford Press.
- Lenton, A. P., Blair, I. V., & Hastie, R. (2001). Illusions of gender: Stereotypes evoke false mem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3-14.
- Liberman, N., & Förstner, J. (2000). Expression after suppression: A motivational explanation of postsuppressional reboun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90-203.
- Macrae, C. N., Milne, A. B., & Bodenhausen, G. V. (1994). Stereotypes as energy-saving devices: A peek inside the cognitive tool bo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37-47.
- Macrae, C. N., Bodenhausen, G. V., Milne, A. B., & Wheeler, V. (1996). On resisting the temptation for simplification: Counterintentional effects of stereotype suppression on social memory. *Social Cognition*, *14*, 1-20.
- Macrae, C. N., Bodenhausen, G. V., Milne, A. B., & Ford, R. L. (1997). On regulation of recollection: The intentional forgetting of stereotypical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709-719.

- MacLeod, C. M. (1999). The item and list methods of directed forgetting: Test differences and the role of demand characteristics.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6, 123-129.
- Moscowitz, G. B., Gollwitzer, P., Wasel, W., & Schaal, B. (1999). Preconscious control of stereotype activation through chronic egalitarian goals on att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67-184.
- Moscowitz, G. B. (2002). Preconscious effects of temporary goals on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397-404.
- Moscowitz, G. B., & Gesundheit, Y. (2009). Goal priming. In G. B. Moscovitz, & H. Grant (Eds.), *The psychology of goals* (pp.203-23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oscowitz, G. B., & Ignarri, C. (2009). Implicit volition and stereotype control. *European View of Social Psychology*, 20, 97-145.
- Moscowitz, G. B., & Li, P. (2011). Egalitarian goals trigger stereotype inhibition: A proactive form of stereotype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103-116.
- Park, S. H., Glaser, J., & Knowles, E. D. (2008). Implicit motivation to control prejudice moderates the effect of cognitive depletion on unintended discrimination. *Social Cognition*, 26, 401-419.
- Perdue, C. W., & Gurtman, M. B. (1990). Evidence for the automaticity of age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199-216.
- Roediger, H. L., III, & McDermott, K. B. (1995). Creating false memories: Remembering words not presented in lis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1, 803-814.
- Roediger, H. L., III, Watson, J. M., McDermott, K. B., & Gallo, D. A. (2001). Factors that determine false recall: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21, 803-814.
- Sela, A., & Shiv, B. (2009). Unraveling priming: When does the same prime activate a goal versus a trai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 418-433.
- Shah, J. Y. (2003). Automatic for the people: How representations of significant others implicitly affect goal pursu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61-681.
- Shah, J. Y., & Kruglanski, A. W. (2003). When opportunity knocks: Bottom-up priming of goals by means and its effect on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109-1122.
- Shah, J. Y. (2005). The automatic pursuit and management of goal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10-13.
- Steffens, M. C., & Mecklenbräuker, S. (2007). False memories: Phenomena, theori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sychology*, 215, 12-34.
- Tse, C. S., & Neely, J. H. (2005). Assessing activation without source monitoring in the DRM false memory paradigm.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3, 532-550.
- Wegner, D. M. (1994). Ironic processes of mental control. *Psychological Review*, 101, 34-52.

Stereotype Control and Memory Illusion: A Comparison between Goal Priming and Forget Instruction

Hong-Im Shin Min-Shik Kim

Brain Korea Project for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ompare false memory effects of goal priming and directed forgetting to control negative stereotypical informations about elderly adults. Participants, 22 male and 34 female university students listened to a news about increasing rates of elderly citizens in Korea living alone. This was followed by a lexical decision task with stereotypical and nonstereotypical words, to investigate the activation of aging stereotypes and to divide the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high or low stereotype activation. After that, the participants read articles about young and elderly people either under the condition of goal priming or under the condition of the forget instruction. Finally, a recognition test was conducted based on the Deese-Roediger-McDermott (DRM) paradigm to compare effects of these two conditions for false memory about stereotypical and nonstereotypical items between the two groups with high or low stereotype activ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false recognition rates for stereotypical item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igh activation group with the forget instruction than in this group of the goal priming condition.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lse recognition rates for the nonstereotypical items. These findings supported our hypothesis, that the forget instruction activates negative stereotypical information, which resulted in the memory illusion and the disruption of stereotype control. In addition, the false recognition rates under the condition of goal priming were lower than under the condition of the forget instruction, which might be interpreted as evidence for effective stereotype control. Implications of the outcome for stereotype control are discussed.

Keywords: stereotype control, memory illusion, goal priming, forget instruction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1월 07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5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5월 17일

부록 I

짧은 글

24세의 성실한 대학생인 최기영씨는 산책로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시계를 불안하게 보다가 자신의 신발에서 먼지를 말끔히 닦아낸다.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최기영씨는 가끔은 기다리는 것을 못 참고 조급해한다.

72세의 최금자 여사는 손자를 기다리며 거실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
작년부터 건강이 좋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같지 않지만 손자와의 시간은 항상 행복하다.
남들에게 관대하고 인자한 최금자씨는 그림을 좋아해서 자주 전시회에 간다.

긴 글

17세의 고등학생인 미혜는 느린 걸음으로 공원을 산책한다.
작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활동을 할 때면 쉽게 피로해진다.
재능있고 유머가 풍부한 미혜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보러 다니는 시간이 즐겁다.
그러나 민감한 취향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못한다.

67세의 탁진규씨는 느린 걸음으로 산책로를 걷고 있다.
어릴 적 친구들이 생각나 편지를 쓰다가 고향에 문득 갑자기 가고 싶어졌다.
옛날에 다녔던 학교와 추억의 장소들을 생각하니 그리움이 느껴졌다.
평소의 그는 생동적인 변화를 좋아하여 많은 도전적인 경험을 즐긴다.
또한 머릿속에는 항상 재미있는 생각들이 가득하다.

25세의 회사원인 김창국씨는 오늘도 회사에서 늦게 출근했다.
자주 지각하지만 누가 보아도 열심히 일하는 김창국씨다.
단순하고 부주의한 성격 탓에 실수도 많이 하지만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요즘에 회사에 업무가 많아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음만은 항상 여유롭다.

82세의 이복길 여사는 기억력이 예전같지 않다.
신문이나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만 요즘엔 빨리 피로해진다.
그래도 날씨가 좋은 날엔 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기도 한다.
건강이 작년부터 좋지 않아 가까운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마음은 대체로 항상 여유롭고 행복하다.

부록 II

재인과제

1	24세 최기영씨는 성실한 대학생이다.	O	X
2	최기영씨는 조급해하는 성격이다.	O	X
3	최기영씨는 운동을 좋아한다.	O	X
4	72세 최금자씨의 기억력은 나빠졌다.	O	X
5	최금자씨는 오만한 성격이다.	O	X
6	최금자씨는 남들에게 관대하다.	O	X
7	최금자씨는 완고하다.	O	X
8	17세의 미혜는 작년부터 건강이 좋아졌다.	O	X
9	미혜는 재능있고 유머가 풍부하다.	O	X
10	미혜는 영화보는 것을 즐긴다.	O	X
11	67세의 탁진규씨는 보수적이다.	O	X
12	탁진규씨는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한다.	O	X
13	탁진규씨는 자주 불안해한다.	O	X
14	탁진규씨는 비현실적이다.	O	X
15	탁진규씨는 고향을 생각한다.	O	X
16	탁진규씨는 허약하다.	O	X
17	25세의 김창국씨는 지각을 자주 한다.	O	X
18	김창국씨의 마음은 항상 여유롭다.	O	X
19	김창국씨는 단순하고 부주의하다.	O	X
20	82세 이복길 여사의 기억력은 요즘 좋아졌다.	O	X
21	이복길여사는 공격적이다.	O	X
22	이복길여사는 삶에 지쳐있다.	O	X
23	이복길여사는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O	X
24	이복길여사의 마음은 외롭다.	O	X
25	이복길여사는 예민하다.	O	X